

다시 또 같이!

남북 문화교류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제2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일정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4:00 - 16:00

장소 청주대학교 새천년관 409호

주최 ·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목 차

발표 1	5
북한 영화와 드라마 특징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	
발표 2	21
<춘향전>을 찾아서	
한상언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발표 3	27
남한 내 북한영화사 연구에 관한 일고찰	
함충범 (한국영상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좌담회	35

제2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발표 1

북한 영화와 드라마 특징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

[강사 약력]



현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문학(고전문학 전공) 박사
前 북한연구학회 학회장

<주요 연구-저서>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2024)
북한의 체육정책과 체육문화 (2020)



북한 영화와 드라마 특징

전영선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교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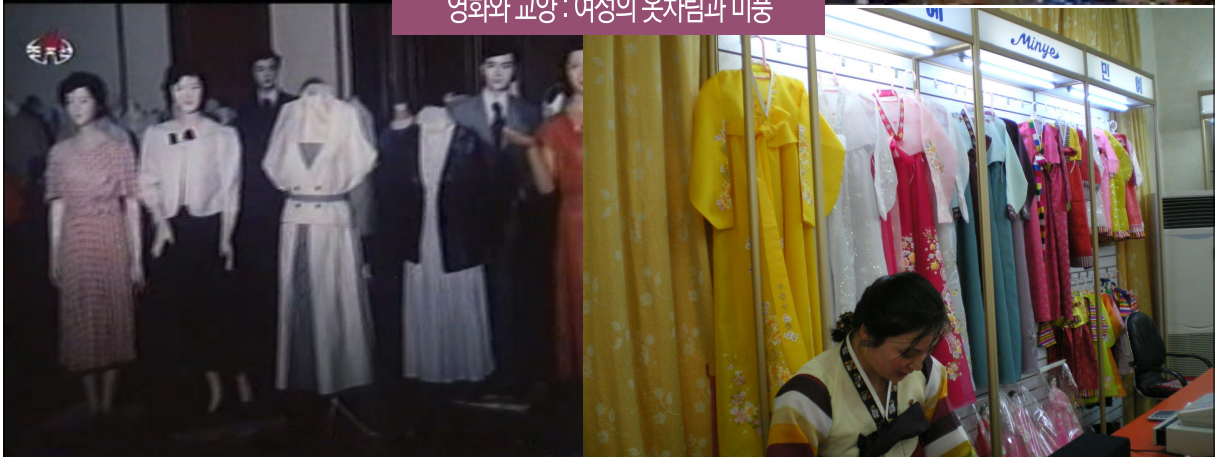




영화와 교양: 휴대폰 에티켓



영화와 교양: 여성의 옷차림과 미풍





영화와 교양: 공공시설물을 아끼자

어떻게 살 것인가?

- 인물 ‘어떤 인물’, ‘어떻게 살 것인가’
- 공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대비
- 공정적 인물은 충직 + 오직 한 길

*북한 영화 드라마의 사명: 본보기 인간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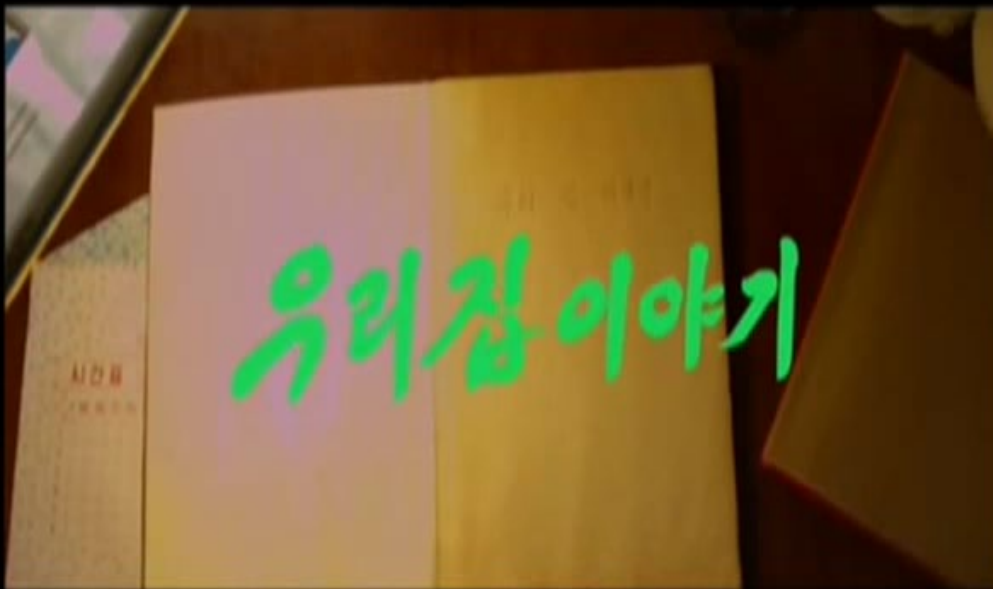
살기 좋은
농촌으로



수령결사옹위
의 정신으로



〈도라지꽃〉과 〈비행사 길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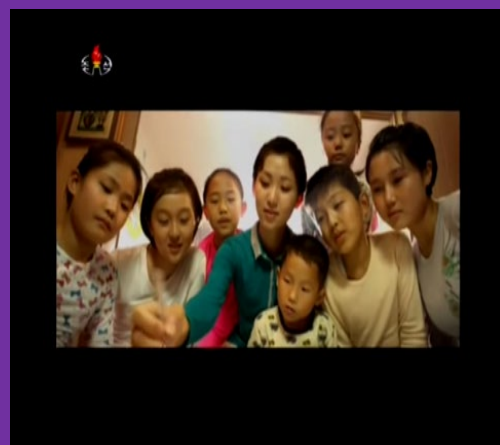


2016년 제작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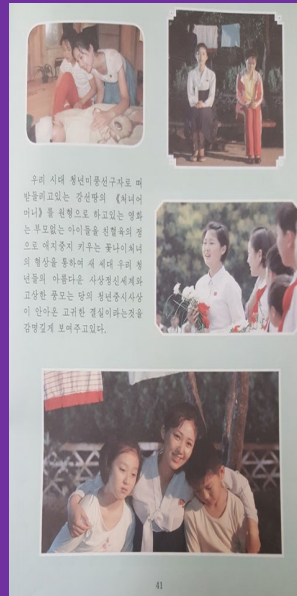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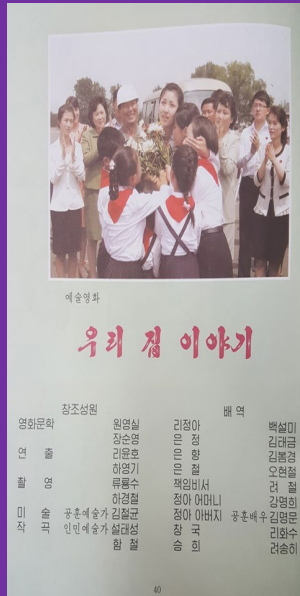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

- ❖ 18살의 처녀 리정아의 은정이 자매(은정, 은향, 은철) 돌보는 이야기
 - 김정은 시대의 청년 영웅 장정화(극중 리정아)라는 인물의 실화 영화
 - 장정화 18살 청년동맹원
 - 처녀의 몸으로 일곱 명의 고아를 키워 김정은 ‘처녀어머니’
 - 김정일 사망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상자
 - 인기 프로그램 편집 반영
 - 201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70돌 기념 영화로 방영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



❖ <우리 집 이야기> 주제

▶ ‘우리의 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정아를 중심으로 당원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고아를 돌보는 모습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자체가 곧 ‘우리 집’이라는 메시지



2022년 제작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 <우리 집 이야기>

- ❖ '하루낮 하루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없이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와 당을 배신한 사람들을 폭로하는 이야기.
- ❖ 핵심은 국가의 배신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타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주인공은 평범하지만 수령에 대한 마음이 올곧은 사람
- ❖ 인민 대중은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평범하지만 수령을 결사옹위해야 된다, 즉 김정은을 수령처럼 결사옹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 ❖ '1958년에 천리마의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2022년에 이런 천리마의 기적을 다시 갖고 오자' - 이지순(통일연구원)



❖ 음. 이거는 안 돼

2

금기주제



❖ 19금은 안돼!!!!

- 선정적이거나 섹시하거나 자극적인 것은 NO!
- 키스신 NO! 베드신 NO! 노출 NO!

❖ 나쁜 것 안돼!!!!

- 폭력적인 것도 NO!
- 욕하는 것도 NO!
- 술 마시는 것도 NO!
- 담배는 지금은 NO!
- 반항하는 것 NO!



사회주의와 과학



❖인간이 아닌 것은 안돼!!!!

- 귀신 No!
- 좀비 NO!
- 늑대인간 NO!
- 흡혈귀 NO!
- 요괴 NO!
- 천사NO!

❖왜!!!!?????

- 사회주의는 과학이야
- 사회주의는 유물론
- 영혼 심령은 비과학

❖우리에게는 인간만 있다.

- 북한에서는 로봇이 등장하지 않는다.
-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인간!
 - ✓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에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With 수령님)
 - ✓ 기계는 인간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부속물 일 뿐
 - ✓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역사가 문화에도 반영되어야

❖ 2025년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

3







❖ 감사합니다.



제2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발표 2

<춘향전>을 찾아서

한상언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강사 약력]



현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영화학(한국영화사 전공) 박사
충남 천안 복합문화공간 '노마만리' 운영

<주요 연구-저서>

스탈린거리의 평양책방 (2023)
평양, 1960 (2020)

<춘향전>을 찾아서

한상언(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영화 <춘향전>을 찾아서

- ▶ 외국 연구자에게 동구권 필름 아카이브를 찾아 볼 것을 권유
 - ▶ 가보 세보(헝가리), 로만 후사르스키(폴란드)
- ▶ 폴란드 기록영화촬영소(Wytwórnia Filmów Dokumentalnych i Fabularnych, 약칭 WFDiF)에 보관된 북한 영화 중 “춘향전” 확인
- ▶ 2024년 5월29일, 폴란드 기록영화촬영소에서 북한 영화 관람
 - ▶ “춘향전” (1959), “애국자” (1959),
“한 자위단원의 운명” (1970),



“춘향전”을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 ▶ 1959년 모스크바 영화제 촬영상 수상작
 - ▶ 각본 김승규, 연출 윤용규, 촬영 오웅탁
 - ▶ 우인희(춘향), 신창규(몽룡) 출연
- ▶ 페이스북과 씨네21에 “춘향전” 관람기를 작성
-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관심을 가짐
- ▶ “춘향전”의 수집을 위해 폴란드 측과 접촉
- ▶ 조만간 한국에서 볼 수 있을지도...



1950년대 남한에서의 춘향전

- ▶ 1955년 이규환의 <춘향전>
 - ▶ 전후 한국영화의 성장을 견인
- ▶ 1958년 임화수의 <춘향전>
 - ▶ 합작영화 <이국정원>의 흥행 실패, 제작 무산
- ▶ 1958년 안중화의 <춘향전>
 - ▶ 이만수의 서울물상연구소 - 서울칼라라보 - 국산칼라영화제작
- ▶ 1961년 신상옥과 흥성기의 <춘향전> - 칼라시네마스코프



북한에서의 <춘향전>

- ▶ 1948년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로 <춘향전> 제작 시도 : 무산
- ▶ 최초의 칼라예술영화
 - ▶ 무용극 <사도성 이야기>(1956)(정준채 연출)
- ▶ 창극을 영화로
 - ▶ <심청전>(김락섭)
- ▶ 극영화 형태로 만들어진 <춘향전>
 - ▶ 윤용규의 <춘향전>은 일종의 종합판
 - ▶ 황철(변학도), 문예봉(몽룡모), 김선영(월매),
 - ▶ 김동규(몽룡부), 최운봉(운봉) 등



<춘향전>의 감독 윤용규

- ▶ 일본 도호에서 도요타 시로 감독의 조연출
 - ▶ 남한의 오영진, 북한의 윤용규
- ▶ 일제말기 조선영화사 연출자 - <개척되는 대륙> 연출
- ▶ 해방 후 좌익 영화운동 활약 / 국민보도연맹
-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마음의 고향>(1949) 연출
- ▶ 한국전쟁 중 월북
 - ▶ <소년빨치산>(1951),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 ▶ <빨치산의 처녀>(1954), <어랑천>(1957), <춘향전>(1959),
 - ▶ <단결의 노래>(1959), <녀성영웅광부>(1960) 등



<춘향전> 상영의 의미

- ▶ 정치적 이유로 금지된 영화를 제 자리에 위치시킨다.
 - ▶ 우인희의 숙청, 다시 만들어진 춘향전
 - ▶ 북한에서 사라진 판소리 확인
 - ▶ 전설적인 배우들의 연기 확인
- ▶ 윤용규 감독에 대한 재조명
 - ▶ <마음의 고향>의 감독에서 <춘향전>의 감독으로
 - ▶ 1950년대 북한영화의 수준 확인
 - ▶ 한국영화사에서 윤용규 감독의 작품에 대한 논의 기대

제2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발표 3

남한 내 북한영화사 연구에 관한 일고찰 :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관계사(1945~2011)' 과제를 중심으로

함충범

(한국영상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강사 약력]



현 한국영상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영화학 박사

고려대학교 문학 박사

<주요 연구-저서>

스크린 위의 테크노피아: 영화 텍스트에 재현된 기술-문명의 세계 (2022)

한일 영화 교류·관계사 (2021)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2025.09.12)

남한 내 북한영화사 연구에 관한 일고찰
: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관계사(1945~2011)' 과제를 중심으로

함충범
(한국영상대학교)

목 차

- 1 과제 개요
- 2 지원 동기
- 3 수행 과정 및 연구 성과
- 4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1. 과제 개요

- 지원 기관 및 사업명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과제명 :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관계사(1945~2011)
- 연구 기간 : 2019.07.01 ~ 2022.06.30 >> 2023.06.30
- 연구비 : 7,294만원 + 9,994만원+ 9,994만원
- 연구진 : 연구책임자(함충범) + 공동연구원(3인)
+ 기타(박사급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오랫동안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고립된 왕국’으로서의 북한의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구 역시 외부 세계와 고립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160여 국가와 수교 중이라는 사실은, 해외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사회를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이에, 본 연구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관계사: 1945~2011’에서는 해방 이후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치며 북한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왔는지 추적하려 한다. 즉 북한영화의 국제적 교류 및 관계의 역사를 발굴하여 북한영화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2. 지원 동기

- 관련 연구의 동향 : 서적의 출판과 논문의 다양화
- 연구 환경의 개선 : 1차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증대
- 개인적 경험의 축적 : 과목 수강, 교환 유학, 논문 발표, 연구 및 교육의 폭 확대
- 시대적 배경의 변화 : 대북 정책과 국제 정세의 변동



낯선세상을바라보는대유용한것은항이다. 북한기록영화는북한당국의의도를표출하는공식적창의하나로, 북한과같은단한국가들이해하는대중요한프래임을제공한다. 이책은한국영화중북한기록영화라는빈공간을메우기위한기초작업으로북한의기록영화가가진고유한특성과역사에대한기본이해를제공한다. 이를위해북한기록영화의독특한이론체계를살피고통사적관점에서북한의기록영화가정치사회적맥락에따라어떤역할과기능을했는지고찰한다. 이러한시도는북한기록영화에대한이해의지평을넓히고공공적으로북한체제에대한이해의깊이를더하는대기어할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북한 기록영화

김 승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북한연구는정치학에편중되어있다. 북한관련서적은주로전문적인내용을다뤄서일반인이쉽게읽을수없다. 이책의목적은북한과관련해무엇이중요한주제로소통하는것이다. 북한은영화를정치사상교양에서활용하는예술로인식하고중요하게취급한다. 북한에서는국가가모든영화를총체적으로관리감독한다. 따라서단순한영화적분석뿐아니라북한당국이전달하려는메시지를분석하는것도병행해야한다. 이책은영화를제작한시대상황과영화의메시지정책사회상을종합해대표적인조선예술영화열편을분석했다. 북한영화에관심이있는일반인이나북한영화를연구하려는학생에게유용할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북한의 조선예술영화

한 승 호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분단은남북한영화의단골소재였다. 분단이라는독특한소재를다룬남북의영화는단순한영화의의미를넘어분단에대한사회적정치와그역사적형성과정을살피볼수있도록도와주는사료라고할수있다. 한시대사회구성원사이에는그들의정치와욕망을나타내는하나의경향성이있으며이러한경향성은그시대의감정구조를기반으로형성된다. 따라서각시기분단영화에나타난공통적인정치적패턴을포착할수있다면그시대감정구조의흔적들을찾아볼수있을것이다. 분단감정구조의역사성을살펴보는것은남북한사이에형성된마음의벽을넘어서는첫걸음이될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남북 분단영화의 감정구조

김 명 신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청와대=류재민 기자 | 입력 2019.06.30 16:42 수정 2019.06.30 19:08 댓글 0

북미, 정전 선언 66년 만에 DMZ 첫 만남 뒤 단독 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재개 본격화..문 대통령, '중재자·촉진자' 역할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정전 선언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YTN영상 갈무리

3. 수행 과정 및 연구 성과

- 2019년 7월부터 연구 수행
- 2020년 1월 자료 수집을 위해 모스크바 방문
- 2020년 2월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 2022년 12월 자료 수집을 위해 도쿄 및 나고야 방문
- 연구 수행 기간 1년 연장, 2023년 6월 30일 연구 종료
-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구결과물 제출 (학술논문 총 18편)



	1년차 냉전 및 체제건설기 (1945~1972)	2년차 데탕트 및 김일성 유일체제기 (1972~1994)	3년차 탈냉전 및 김정일 집권기 (1994~2011)
남한	남북한 영화의 교류·관계사 연구 (1945~1960) / 남북한 영화의 상호 표상 연구 (1960~1980)	교류·관계사적 측면에서 바라본 남북한 영화의 상호 표상 (1980~1994) /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의 국제 영화교류를 통해 본 남북영화교류 방안	
일본	北朝鮮と日本の映画 交流・関係史研究(1945~1972)	北朝鮮と日本の映画 交流・関係史研究(1972~1994)	北朝鮮と日本の映画 交流・関係史に関する研究 (1994~2011)
미국	북한 전쟁영화와 기록영화 속 미국(군) 표상 연구 : 6·25전쟁과 그 전후(前後) 시기를 중심으로 / 1960년대 북한영화 속 미국 표상 연구 / 미국영화 속 북한 표상의 흐름 연구: 한국전쟁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1945~1972)	김일성 유일체제기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 연구 (1972~1994) / 데탕트, 보수화 시기의 미국영화 속 북한 표상: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제기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 (1994~2010) / 김정일 집권기 미국영화 속 북한 표상
중국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연구 (1956~1966)	1970년대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러시아 (소련 및 구 동구권)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관계 연구 (1945~1972) : 소련·동유럽을 중심으로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관계 연구 (1972~1994) :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4.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연구의 보충을 통한 미발표 논문의 완성
- 총 22편의 논문을 토대로 한 단행본 발간
- 과제 결과의 학술적 기여
- 국내외 정세의 재편에 따른 북한영화사 연구의 활성화

제2차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남북 문화, 영화로 말하다

좌담회

- 좌 장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
- 발표 패널 : 한상언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함충범 (한국영상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 토론 패널 : 이지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해숙 (KBS 보도국 연구원)
임옥규 (청주대 교양대학 교수)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